



광주CGI센터



세계김치연구소



시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 수백억 들인 공공건물, 문 열자마자 물새고...금가고...

광주CGI센터 등 58곳 지반침하·누수·균열 등 각종 하자  
부실공사 의혹에 보수는 '땀질'...광주시, 긴급 재점검 나서

광주시가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일부 공공건물(시설물)들에서 누수 등 지반침하, 균열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면서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CGI센터와 세계김치연구소, 광주고령친화종합체험관 등은 완공 후 해마다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땀질식' 긴급 보수에만 그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면 시가 혈세를 투입해 보수해야 할 판이어서 부실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급기야 하자보수 기간이 남은

공공시설물을 재점검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상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기준 광주시 관내 공공시설물에서 하자가 발생해 보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 곳은 58개소다.

업체에선 공식조치 외에도 현장에서 긴급 하자보수가 이뤄진 사례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40억원짜리 광주 CGI센터 건물은 2012년 3월 개관과 동시에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CGI센터는 지난해에도 가스 누설 및 누수 등 추가 하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올

해에는 천장 누수와 벽체에서 균열까지 발견됐다.

북구 다목적체육관도 지난 2012년 마룻바닥 들뜸과 관중석 의자 흔들거림 등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건물 누수까지 발견됐다.

지난 2010년 346억원을 투입해 문을 연 김치타운은 지난해 배수 불량 등으로 보수 조치됐다.

특히 어린이와 아픈 시민 등을 위한 어린이집과 의료 관련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 300억원을 들여 완공한 광주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은 오픈 하자마자 도색이 벗겨지고, 출입 리프트 불량, 배수 불량, 조경목 고사 등에 이어 올해에는 산책로데크 바틀린 등이 발견됐다. 광주노인전문병원도 지난

해 병실과 안내데스크 등이 누수되고, 화장실 타일 등이 깨져 보수 조치됐다.

179억원을 들여 2012년 12월 준공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준공 첫해부터 건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해 지난해는 계단 누수 및 바닥 파손 등, 올해는 전기설비 누수, 벽 균열 등 하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첨단에 문을 연 시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원생 100여명)은 1년여가 넘도록 누수와 내벽 곰팡이는 물론 화재경보기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되레 이를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한 해당 어린이집원장이 괴롭힘에 걸려 견디지 못하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인지 광주시가 운영중인 '부실공사신고센터'에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이 밖에도 ▲시립노인재미요양병원 계단 들뜸, 병실 창틀 누수, 옥상 누수 ▲동명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천장 누수 ▲동물보호소 출입구 및 복도 천장 누수 ▲효령노인복지타운 천장 누수, 1~2층 연결램프 천장 누수 등 ▲광주비엔날레 시설 확장 공사 1층 바닥 균열, 2층 천장 누수 ▲실내음악당 및 통기타촌 주변 주차장 계단 벽 누수 등 ▲광주 제2컨벤션센터 벽체 및 천장 누수, 2층 바닥균열, 마감 불량 등 ▲광주 음식물 자원화시설 저장탱크 누수 등 하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정치 후원금 '뚝'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혹한의 계절'

경기침체·새정치 실망감 겹쳐  
1000만~7000만원 그쳐  
3억 달성 목표 '개미 확보' 총력

정치 후원금이 뚝 끊기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때 이른 '혹한의 계절'을 맞고 있다.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국회의원들이 모을 수 있는 후원금 규모는 평소의 두 배인 3억 원이다.

하지만 후원금 실적은 그 어느 해보다 저조하다. 3선의 중진 의원들이 적게는 5000만원, 많아야 70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모은 상황이며 초선 의원들은 1000만~3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전남의 모 초선 의원은 후원금 실적이 1000만원을 겨우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00만원 이상 고액 후원금을 내는 '큰 손'은 과거에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검찰의 편법 정치후원금에 대한 압박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서 상임위 산하기관과 각종 단체들이 후원금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감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 창출 가능성이 없는 정당과 정치적 비전을 보이지 못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의원실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역조직을 동원해 10만원 짜리 '개미(소액) 후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에선 보좌진에게 실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말 특수'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연말 정산을 앞두고 12월에 직장인들의 개미 후원금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후원금 한도를 채우는 의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도액의 절반만 채워도 성공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 모 국회의원 보좌관은 "올해 후원금 한도액의 반타짜이라도 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라면서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두근두근 예비소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2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올해 수능은 광주 2만1394명, 전남 1만9129명이 응시해 91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수능 한파...광주·전남 4만523명 응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광주·전남 91곳 등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관련기사 6면)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64만621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126명 감소했다. 광주는 309명 줄어든 2만1394명, 전남은 249명 감소한 1만9129명이 응시했다.

모든 수험생은 이날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시험 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험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서로 진행된다.

올해 수능은 영어 영역이 통합형으로 전환됐다. 국어와 수학은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으

로 치러진다. 성적은 12월3일 통지된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수능 한파가 예상된다.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전망됐다.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아침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 1시간 늦춰지고,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수험생 입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행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 수능...꼭 기억하세요

- 고사장 입실-오전 8시10분까지 입실
- 지각 우려 땀-112·119로 신고하면 긴급 이송
- 수험표 분실 땀-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사진과 신분증 갖고 시험장서 입시수험표 발급
- 답안지마킹 땀-에비미킹 흔적 지우개·수정테이프로 꼼꼼히 지우야
- 화장실 가고 싶으면-감독관 허락받고 동승 감독관이 화장실 동행해 이송칸 지정
- 꼭 챙길 것-수험표, 신분증, 도시락, 연필, 지우개,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연필심(0.5mm 흑색), 기타 기능 없는 일반시계
- 두고 갈 것-개인용 샤프펜, 볼펜, 모든 전자기기(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시각표시·교시별 전역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 부착된 시계 등).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전에 반드시 제출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HERA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헤라 모디파이어-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HERA  
MODIFIER  
Cell-Bio Layer Belf™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명매체침이나 이모러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